

도시 부부들의 사회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 결혼 5년 미만의 부부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cial-Psychological Marital Conflict of Urban Couples

- As Related to Couples in the Early Marriage Stage -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李昌叔

Dept of Housing, Child & Family Studies Kyunghee University

Ph.D Candidate : Chang Suk Lee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al-psychological marital conflict contents and marital conflict degree, and find out how socio-demographic variables had an effect on marital conflict.

For these purposes, 265 couples in the early marriage stage in seoul were randomly selected.

The data were analysed through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paired t-test, F-test, Scheffe-test, factor analysis.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main social-psychological marital conflict contents was the attitude or habit of life, communication, sexual life, personality and intimacy.

Second, the degree of marital conflict was relatively low. Taking a look at each conflict fact, wives was higher than husbands in the degree of the conflict in intimacy factor.

Third among socio-demographic variables, level of family income, wife's education and marriage style had influences on the the marital conflict degree.

I. 서론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은 다른 어떤 세기보다 가족이 애정적 인간관계와 안식처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감당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발맞춰, 현대가족의 연구는 가족의 기원, 제도, 형태적 측면보다 가족의 기능, 가족성원간의 인간관계,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유영주, 1993). Burgess는 그의 가족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성원들간의 상호작용측면을 매우 중요시 하였으며, 가족을 "상호작용하는 인격체들의 통일체(a unity of interacting personality)"로 보면서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 관심을 집중시켰다(장휘숙, 1995). 또한 유영주(1993)도 가족관계란 가족상호작용의 역동적 과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차원을, 나아가 그들의 기능성을 강조하였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상호작용적 접근(interpersonal approach)은 특히 가족원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원 상호간의 역동적 행위 즉 전달, 갈등, 의사결정, 문제해결, 위기 등에 대한 양상과 이러한 상호간의 행위에서 연유되는 그들의 심리적, 정서적 양태와 서로간의 관계들에 대한 연구로써, 현대 가족의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는 현대 사회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상호작용적 접근에 대한 연구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를 볼 때, 인구주택총보고서(1993)에 의하면 부부중심의 가족이 76%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Stinnett와 Defrain(1985)은 이러한 부부중심의 가족에서 가족의 강도(family strength)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부관계요인"을 지적하면서, 애정있고 친밀한 부부관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결혼생활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도움과 제제보다는 점차 "부부요인"이 결혼관계의 성공에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으며, 또한 현대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관계는 부부 개인의 특징이나 사회적 지원의 정도보다도 "부부간의 관계적 특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동인, 정현숙, 1994). 그러므로 부부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을 절대적으로 보이고 있는 현대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여러 측면 중에서 특히 "부부간 상호작용 행위 및 그들의 관계적 특성들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되고 있다. 즉 부부체계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의 속성, 내용, 과정 등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의 가족연구자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욱더 긴밀한 이러한 부부관계는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항상 큰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갈등"에 대해서도 가장 큰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Argyle & Furnham, 1983). 즉 부부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심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반면 잘 조화롭게 이뤄나간다면 부부관계는 큰 만족감으로 충족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부부들은 만족관계, 갈등관계 양국면을 접하면서 그들의 결혼관계를 이끌어 나간다.

중앙가정상담소(1991), 사랑의 전화(1993), 한국여성개발원(1991)의 상담자료에서 현대 한국가족의 문제 중 1순위가 "부부갈등"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녀문제, 고부갈등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송성자, 1995), 부부체계에서 벌어지는 남편과 부인의 상호작용행위 중 "갈등양상"에 대한 연구는 현대 가족문제 연구에 매우 의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체계와 체계와의 관계는 상호의존적 관계이고, 순환적 관계이므로(송성자, 1995), 하위체계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전체 가족체계의 흐름과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위체계들의 효율적인 기능과 하위체계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의 여러 하위체계 중에서 중추하위체계라 할 수 있는 부부체계안에서 벌어지는 "부부갈등"이라는 사건을 관찰해 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체계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건을 특히 부부들의 사회심리적측면에서의 갈등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갈등을 부부관계를 하나의 "사회적 관계"로 보고 남편과 부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정서적 차원의

갈등으로 보았다.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김정옥, 1985; 김혜경, 1986; 송영자, 1986; 이영실, 1989; 길미령, 1990; 김영자, 1992; 김양희, 1993 외 다수), 이들 연구 중 많은 연구가 광범위한 부부갈등요인들을 다루고 있고, 체계론적 관점으로 부부 쌍단위로 이뤄져야 할 것들이, 각기 독립된 남편이나 부인들의 연구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부부를 쌍단위로 모집하여 그들 부부들이 갖고 있는 사회심리적 갈등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대 부부들이 결혼 후 5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7쌍 중 1쌍이 이혼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인구동태통계연보, 1993), 결혼 주기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부부가 서로에 대해 민감해 있는 시기인 결혼 5년 이내의 부부를 쌍단위로 표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도시 부부들이 갖고 있는 사회심리적 갈등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연구문제 2-1.) 도시 부부들의 사회심리적 갈등 정도는 어떠한가?
즉 남편과 부인의 사회심리의 총체적 갈등정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 (연구문제 2-2.) 사회심리적 갈등요인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갈등정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사회심리적 갈등정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갈등에 대한 개념정의

Wilmot와 Wilmot(1978)는 갈등을 의사소통의 시각에서 해석했는데, “갈등이란 두 명이상으로 구성된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표출되는 투쟁을 뜻하는데, 이때 당사자들은 상대방과 목표가 상충한다든가, 자신의 몫이 줄어든다든가, 상대방이 자신의 목표를 방해한다고 지각한다”고 하였다(서동인의2, 1995). 또한 유영주(1993)는 인간의 욕구가 좌절되거나 거부당할 때 느끼는 정서적 상태를 욕구불만(frustration)이라 하고, 둘 내지 둘이상간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를 “갈등”이라 하였다. Pruitt와 Rubin(1986)은 갈등은 “당사자들간의 현재의 희망하는 것들이 동시에 성취될 수 없는, 흥미(interests)와 신념(belief)에 대한 인지의 불일치”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김갑숙(1991)은 부부갈등이란 부부 상호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자원이나 상충되는 목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Coleman(1984)은 부부갈등은 “부부의 상반된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라고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갈등에 대한 몇가지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갈등은 “서로간의 상반된 불일치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서로간의 목표, 욕구, 희망, 신념, 가치관, 행위 등에 대한 기대치들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심리적 싸움(Psychological fighting)” 혹은 “논쟁(contending)”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부갈등의 요인

(1) 국내연구

이영실(1989)은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제요인과 생활불만족의 정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부부갈등 요인을 ① 경제적 요인, ② 자녀관계 요인, ③ 시대관계 요인, ④ 남편의 성격요인, ⑤ 사회, 문화적 관계 요인, ⑥ 부

부의 대인관계 요인, ⑦ 남편의 사회적 활동 요인, ⑧ 부인의 사회적 활동 요인, ⑨ 건강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인의 사회적 활동문제, 부부의 대인관계문제, 남편의 성격문제, 건강문제 순으로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갑숙(1991)의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기초로 48문항을 작성하여, 부부갈등내용에 대해 요인분석을 하여, 8요인을 채택하였다. 즉 ① 성격, ② 성, ③ 자녀, ④ 의사소통, ⑤ 시가죽, ⑥ 배우자 부정, ⑦ 경제난, ⑧ 금전관리문제로 갈등영역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갈등정도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성격문제, 성문제, 자녀문제 순으로, 성격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배민자, 1980; 박영옥, 1986; 박선미, 1987)를 뒷받침해 주었다.

김영자(1992)는 부부간의 갈등요인·갈등정도·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를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1,0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10개의 부부갈등요인을 제시하였는데 ① 재정요인, ② 성격요인, ③ 부모 및 형제요인, ④ 자녀요인, ⑤ 의사소통요인, ⑥ 가치관 및 생활양식요인, ⑦ 직업 및 사회활동요인, ⑧ 애정 및 성격요인, ⑨ 건강요인, ⑩ 가사관리요인을 들었다. 이들 요인 중 특히 성격요인, 의사소통요인 및 건강요인이 중요한 갈등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김재경(1992)은 부부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갈등을 체계론적 입장에서 규명하였는데, (1) 심리사회적 하위체계갈등요인으로 ① 부부관계, ② 인척관계를, (2) 관리적 하위체계갈등요인으로 ① 의사소통, ② 재정관리, ③ 가사노동분담을 제시하였다.

홍원표(1993)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부부갈등정도와 부부갈등관리방법, 부부갈등결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중요한 갈등요인은 ① 가사처리문제, ② 성격문제, ③ 금전처리문제, ④ 자녀교육문제, ⑤ 부부대화문제, ⑥ 직장문제, ⑦ 친척간섭문제, ⑧ 애정표현과 성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영(1994)은 부부갈등문제 및 대응행동분석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는 전화상담에 의한 자료를 기초로 부부갈등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요 부부갈등문제로 배우자의 외도문제가 1순위(80.8%)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외도문제가 과거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가치관, 성격 및 의사소통문제, 친족관계, 자녀문제, 생활문제, 폭력, 알콜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부갈등문제를 성별로 살펴 볼 때, 남자는 성생활문제, 배우자의 늦은 귀가, 외박, 가출문제로 상담해 왔으며, 여자는 외도, 가치관, 성격 및 의사소통, 폭력, 알콜문제, 친족관계문제로 더 많이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외연구

Rice, F. P.(1979)는 부부의 갈등영역을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1)사회적 상관요인으로 ① 지위, ② 소득, ③ 교우문제, (2) 관계요인으로 ① 애정, ② 존경, ③ 관계의 평등, ④ 성적 관계, ⑤ 의사소통, ⑥ 역할기대, ⑦ 친밀성, ⑧ 자녀관계 등, (3) 개인적 상관요인으로 ① 건강, ② 종교, ③ 가치관, ④ 취미 등으로 나누었다. 이 세가지 중에서 부부의 관계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하였다.

Geiss, S. K.(1981)는 미국의 가족치료사 250명에게 가장 빈도률이 높은 부부문제사례를 조사하였는데, 의사소통, 배우자에 대한 비이상적인 기대, 권력 싸움, 심각한 개인적 문제, 역할갈등, 사랑의 감정, 애정표현, 알콜중독, 배우자 부정, 성(sex)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 의사소통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한 부부갈등문제로 매우 높은 빈도률(84%)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Madden 과 Janoff-bulman(1981)은 그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갈등문제로 재정적 문제, 가족과의 관계, 아이들의 생활습관 훈련 방법, 가사분담과 자녀 양육, 대화와 정직성, 거주자의 수입, 레크레이션이나 휴가선택, 자녀 갖는 문제, 사회화의 유형, 함께하는 시간, 육체적 질병, 가정문제 결정시 권력조절, 잡일하는 방법을 들었다.

Knapp, M. L.(1984)는 연구에서 부부관계에서 갈

등의 문제로 ① 재정문제, ② 여가시간의 활용문제, ③ 개인적 습관문제, ④ 자녀양육문제, ⑤ 가정내의 책임감문제, ⑥ 친구문제, ⑦ 성공(출세)에 대한 요구문제, ⑧ 친척문제, ⑨ 성문제를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Aron, A., & Pauker, S. L.(1987)은 결혼한지 1년 된 신혼부부 530명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요인을 조사하였는데, 그들은 돈문제, 가족문제, 의사소통문제, 가사문제, 개인취미문제, 의사결정문제, 성문제, 서로를 위한 공유시간문제, 가치관차이문제, 일에 대한 의무감문제, 취미생활공유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중 70%가 한달에 한번은 싸우며, 부부중 63%는 수분내에 싸움을 끝내지만 4%는 몇일 동안 지속되며, 해결방법은 59%가 조용히 대화로 해결한다고 한다.

Betcher, W., & Macauley, R.(1990)의 연구에서는 현대의 부부들은 ① 성실성문제, ② 돈문제, ③ 권력문제, ④ 성문제, ⑤ 사생활문제, ⑥ 자녀문제가 중요한 갈등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고찰한 내용은 <표 1>에 종합분석되어 있다.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동·서양의 문화에 따라 부부갈등요인이 약간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관계적 차원”의 요인에서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부부간의 애정, 성, 친밀감,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와의 문제, 친·인척과의 문제 등이다. 아울러 동·서양의 부부갈등요인의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서양의 부부들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인 배우자의 개인 성격문제로 갈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부들은 개인마다 고유성과 지속성이 있어 변화하기에 힘든 성격요인으로 상당히 갈등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에서는 대부분 “관계적 차원”에서 벗어나는 문제로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취미생활의 공유문제, 서로를 위한 시간공유문제, 친밀성문제, 의사소통, 의사결정문제 등이 주된 갈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중 학력, 직업, 수입, 종교, 결혼형태, 가족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학력

부부갈등의 정도는 대체로 학력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났다(한남제;1984, 박영옥;1986, 송말희;1990, 김갑숙;1992, 홍원표;1993). 그러나 김혜경(1986)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은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업

부부갈등 정도와 직업과의 관계에서는 대체로 남편들이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제(1987)의 연구에서는 직업과 부부갈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지만, 남편의 경우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보다 농업, 자영업, 기술직, 직공, 군인, 무직 등이 갈등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김갑숙(1992)의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의 정도와 아내의 직업 유·무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남편의 경우 근로자 계급이 사회승인도가 높은 집단보다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홍원표(1993)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에 직종이 다를 경우가 직종이 동일한 부부보다 갈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입

수입에 따른 부부갈등정도에서는 대체로 부인들이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월수입이 많을수록 부인들은 부부갈등을 더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옥;1986, 김혜경;1986, 김갑숙;1992). 그러나 홍원표(1993)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월수입과 부부갈등의 정도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종교

홍원표(1993)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에 종교가 다른 경우는 종교가 동일한 부부보다 갈등을 더 높게 느

〈표 1〉 부부갈등 요인 종합분석표

연구자	차원 요인	개인적 차원 요인						관계적 차원 요인						사회적 차원 요인			
		성격	건강	가치관/ 생활양식	부정행위 / 폭력	취미	종교	사회/ 문화적 배경	애정/ 친밀감	성	의사 소통	자녀	부모·형제 / 친·인척	의사 결정	가사 관리	경제 관리	사회활동 / 친구
1	이영실(1989)	○	○					○		○	○	○			○	○	
2	김갑숙(1991)	○			○					○	○	○			○		
3	김영재(1992)	○	○	○					○	○	○	○		○	○	○	○
4	김재경(1992)									○		○	○	○	○		
5	홍원표(1993)								○	○	○	○		○	○		○
6	이미영(1994)	○		○	○				○	○	○	○					
7	Rice(1979)		○	○		○	○		○	○	○	○				○	
8	Geiss(1981)				○				○	○	○						
9	Madden & Janoff-bulman(1981)					○				○	○		○	○	○		
10	Knapp(1984)			○		○				○	○	○			○	○	
11	Aron & Pauker(1987)			○		○			○	○			○	○	○	○	
12	Betcher & Macauley(1990)			○					○	○				○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체적으로 부부갈등 정도와 종교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결혼형태

결혼형태에서는 대체로 중매형과 절충형보다는 연애형이 갈등을 더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남제;1984, 박영옥;1987, 홍원표;1993).

(6) 가족형태

홍원표(1993)의 연구에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간의 부부갈등의 정도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부부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확대가족에서보다 핵가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결혼 5년 이내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 표집(purposive-sampling)을 한 것이며, 총 350쌍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65쌍의 질문지가 회수되어(75.7%), 본 연구자료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1995년 12월 18일부터 1996년 1월 20일에 걸쳐 서울시내에 있는 각 대,중소기업, 학교, 가정, 모임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포하였고, 부분적으로 우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도시 부부들의 사회심리적 갈등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척도로써, 최종 5요인으로 구성된 49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다. 부부갈등의 5요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즉 (1) 개인차원의 갈등요인으로 ① 성격요인과 ② 생활습관 및 태도요인 그리고 (2) 관계차원의 갈등요인으로 ① 의사소통요인 ② 성(sex)생활요인 ③ 친밀감요인이 구성되었다. 연구자가 척도를 구성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기까지, 첫째, 기존의 국내, 외 부부갈등내용들에 관한 문헌조사를 통해 부부갈등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으며, 그 중에서 주된 사회심리적 갈등내용들을 선별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현대 부부들의 사회심리적 갈등내용들을 파악해 보기위해 서울시 거주 20명의 부부들(남편:7, 부인:13)을 대상으로 비구조화(semi-structured)된 질문지로 인터뷰하여 얻은 자료와 개방형 질문지를 60명의 부부들에게 배부하여 얻은 자료를 기초로 문항들을 더 추가 선별하였다. 셋째,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정하여 총 59문항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조사의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서, 먼저 타당도는 가족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내용타당도로 검토해 보았으며, 구인타당도로 각문항과 전체총점과의 상관계수를 측정하여 계수가 낮은 항목 10항목을 제외하고, 총49문항을 선별하였다. 49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α 값을 추정한 결과 .98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서, “갈등이 전혀 없다” 1점에서부터 “갈등이 매우 많다” 5점을 주었다. 따라서 각 개인의 갈등 총점수의 가능한 범위는 49점에서 245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갈등정도가 높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AS program과 SPSS/PC program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값, 표준편차, cronbach's α , paired t-test, F-test, Scheffe-test, factor analysis를 적용하였

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살펴 보기위해 빈도와 백분률로 분석해 본 결과 <표 2>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2. 사회심리적 부부갈등의 요인구조

연구문제 1에서 “부부들이 갖고 있는 사회심리적 갈등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530명의 자료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요인추출모델로서 요인수를 최소화하면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문항간의 상관계수를 기초로 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하여, 고유치(eigenvalue)가 1.0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1에 많은 변인이 집중되므로, 단순하고 개념상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공통요인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varimax rotation으로 회전시켰다. 그 결과 요인 1에 집중되었던 변인이 분산되므로, 각 요인별로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 요인구조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요인에 높게 부하된 문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1요인에는 12문항, 요인2에는 15문항, 요인3에는 8문항, 요인4에는 8문항, 요인5에는 6문항이 높게 적재되었다.

제1요인은 변량의 크기가 7.28로 설명변량은 49.9%이다. 이 요인에는 배우자의 “도박”, “낭비와 사치”, “늦게 귀가와 외박”, “술과 담배” 등에 대한 갈등으로 제1요인을 “생활습관 및 태도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은 변량의 크기가 7.22로 설명변량은 5.0%이다. 이 요인에는 배우자의 “의사결정 독단성”, “대화없음”, “불평불만”, “의견무시”, “비난, 질책” 등에 대한 갈등으로 2요인을 “의사소통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은 변량의 크기가 6.67로 설명변량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구 분	단위(N(%))		
		남 편	아 내	계
연령	21 - 30세	43(16.2%)	123(46.4)	166(31.3%)
	31 - 40세	212(80.0%)	139(52.5%)	351(66.2%)
	41세 이상	10(3.8%)	3(1.1%)	13(2.5%)
학력	중졸이하	1(0.4%)	2(0.8%)	3(0.5%)
	고졸	42(15.8%)	92(34.7%)	134(25.3%)
	대졸	188(70.9%)	156(58.9%)	344(64.9%)
	대학원졸	34(12.8%)	15(5.7%)	49(9.3%)
직업	전문직	87(32.8%)	63(23.8%)	150(28.3%)
	관리직	21(7.9%)	5(1.9%)	26(4.9%)
	사무직	127(47.9%)	45(17.0%)	172(32.5%)
	판매/서비스	23(8.7%)	14(5.3%)	37(7.0%)
	생산직	5(1.9%)	3(1.1%)	8(1.5%)
	기타	0(0.0%)	7(2.6%)	7(1.3%)
	무직	2(0.8%)	128(48.3%)	130(24.5%)
종교	무교(無敎)	136(51.3%)	98(37.0%)	234(44.2%)
	유교(有敎)	129(48.7%)	167(63%)	296(55.8%)

		단위(가구(%))	
월수입	100만원이하	15(5.7%)	15(5.7%)
	101-150만원	50(18.9%)	50(18.9%)
	151-200만원	85(32.1%)	85(32.1%)
	201-250만원	47(17.7%)	47(17.7%)
	251-300만원	43(16.2%)	43(16.2%)
	301만원이상	25(9.4%)	25(9.4%)
결혼형태	중매형	70(26.4%)	70(26.4%)
	연애형	195(73.6%)	195(73.6%)
가족형태	핵가족	211(79.6%)	211(79.6%)
	확대가족	54(20.4%)	54(20.4%)

은 3.1%이다. 이 요인에는 배우자의 “성관계시 성실하지 못함”, “성생활에의 무관심”, “성생활회피나 거부”, “성행위 독단적”, 등에 대한 갈등으로 3요인을 “성(sex)생활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4요인은 변량의 크기가 5.81로 설명변량은 3.0%이다. 이 요인에는 배우자의 “우유부단”, “의존적”, “소극적”, “이기적” 성격 등에 대한 갈등으로 4요인을 “성격요인”

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1990)와 변화순의 연구(1992) 결과에서 살펴보면, 일반가정에서 부부간의 “성격차”가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외의 연구결과와는 조금은 다른, 주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이에 대한 연구결과의 해석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겠

〈표 3〉 사회심리적 부부갈등에 대한 요인구조

갈 등 내 용 (나의 배우자는.....)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h ²
19. 도박을 한다.	.752	.040	.246	.129	.234	.70
48. 외도와 바람을 피운다.	.710	.030	.326	.235	.293	.75
20. 낭비와 사치가 심하다.	.671	.209	.314	.148	.168	.64
47. 욕이나 거친말을 한다.	.655	.278	.232	.296	.176	.68
37. 폭력적이거나 파괴적 행동을 한다.	.634	.260	.231	.284	.133	.62
26. 거짓말이나 핑계를 잘 낸다.	.580	.197	.354	.241	.337	.67
52. 자기 혼자만 취미생활을 즐긴다.	.579	.239	.277	.493	.243	.77
25. 늦게 귀가하거나 자주 밖에서 잔다.	.576	.193	.182	.059	.541	.70
34. 직장 친구관계 등 바깥 일에 더 신경쓴다.	.549	.368	.304	.232	.238	.64
22. 집안일에 관심없으므로 내가 하는 일이 많다.	.529	.337	.431	.255	.188	.68
7. 술이나 담배를 한다.	.498	.487	.200	.143	.056	.55
21.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439	.216	.403	.425	.119	.60
1. 서로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139	.756	-.037	.015	.058	.60
4. 자신의 생각과 말만이 옳다고 한다.	.017	.740	.075	.105	.174	.59
6.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하고 따르길 원한다.	.216	.664	.189	.017	.305	.62
46. 이야기할 때 고집을 많이 세운다.	.014	.591	.238	.264	.266	.55
12. 나의 열등한 부분을 감싸주지 않는다.	.161	.577	.213	.392	.172	.59
5. 매사를 부정적으로 얘기할 한다.	.152	.568	.288	.181	.220	.51
32. 나에게 대한 이해심이 없다.	.270	.561	.332	.356	.265	.69
28. 사소한 것에도 신경질적으로 얘기한다.	.356	.509	.238	.349	.028	.56
36. 서로 거의 대화가 없다.	.198	.494	.317	.240	.145	.46
57. 얘기할 때 까다롭고 피곤한다.	.326	.488	.300	.479	.065	.67
14. 무엇이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불만한다.	.331	.485	.371	.326	-.025	.59
54. 자신의 말만 잔뜩하고 내 얘기 들으려 않는다.	.403	.480	.318	.387	.165	.67
17. 내 의견을 무시한다.	.430	.451	.387	.377	.205	.72
33. 했던 얘기 여러번 반복하고 잔소리 한다.	.380	.449	.443	.175	.026	.57
42. 매사를 비난, 질책, 평가의 투로 얘기한다.	.377	.431	.319	.414	.184	.63
45. 성관계시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	.295	.136	.755	.181	.195	.75
38. 성관계시 성실하지 못하다.	.249	.142	.751	.073	.283	.73
58. 성생활에 무관심하다.	.249	.179	.746	.267	.083	.73
31. 성생활에 대한 기본지식들을 잘 모른다.	.303	.195	.634	.320	.212	.68
51. 성생활을 위한 생각 주고 받기 싫어한다.	.279	.228	.621	.338	.165	.66
27. 성생활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	.345	.232	.615	.167	.123	.59
30. 성에 대한 행위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223	.199	.536	.237	.414	.60
53. 차갑고 냉정하다.	.311	.337	.532	.368	.184	.66
49. 결단성이 없고 우유부단하다.	.274	.104	.241	.637	.303	.64
24. 의존적이다.	.257	.124	.269	.627	.081	.55
39. 소극적이다.	.039	.125	.271	.592	.405	.60
59. 상황에 따른 판단기준이 다르다.	.284	.404	.178	.563	.048	.60
55. 융통성이 없다.	.264	.375	.211	.519	.405	.69
11. 성격이 불 같고 화를 잘 낸다.	.218	.479	.112	.493	.259	.60
43. 이기적이다.	.192	.272	.257	.488	.457	.62
23. 생각이 편파적이다.	.335	.421	.318	.480	.178	.65
40. 나를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소외시킨다.	.312	.227	.232	.099	.683	.68
16. 나를 무능하다고 비난한다.	.236	.277	.138	.247	.587	.56
50. 서로 애정이 없다.	.440	.103	.199	.239	.472	.52
35. 나에게 무관심하다.	.336	.355	.338	.352	.461	.69
41. 나에게 속마음을 잘 털어 놓지 않는다.	.188	.309	.427	.366	.459	.66
29. 나에게 권위적이다.	.256	.364	.096	.381	.446	.55
eigen v. (고유치)	7.28	7.22	6.67	5.81	4.08	
pct of var (설명변량)	49.9	5.0	3.1	3.0	2.4	63.4

나,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요인은 변량의 크기가 4.08로 설명변량은 2.4%이다. 이 요인에는 배우자의 “소외시킴”, “무능하다고 비난”, “애정없음”, “무관심”, “속마음 털어 놓지 않음”, 등에 대한 갈등으로 5요인을 “친밀감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1,2,3,4요인은 우리나라의 부부갈등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요인이었으나, 제5요인은 부부 친밀감에 대한 갈등으로 설명력은 다른 요인보다 미약하지만 비교적 새롭게 나타난 요인군이었다. 옥선화·정민자(1993), 김태현·이성희(1994)의 연구에서도 최근의 부부갈등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으로, 부부간의 친밀감의 결여가 부부갈등의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라고 하였다. 부부갈등 5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부부 각각의 “개인적 차원”에 의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요인군과 부부 2자간의 “관계적 차원”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요인군으로 이분됨을 알 수 있다. 즉 부부 개인적 차원에서 나타나게 되는 갈등요인은 제1요인인 “생활습관 및 태도요인”과 제4요인인 “성격요인”이며, 부부관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은 제2요인인 “의사소통요인”과 제3요인인 “성생활요인”과 제5요인인 “친밀감요인”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현대 도시부부들의 사회심리적 갈등요인들에는 생활습관 및 태도요인, 성격요인, 의사소통요인, 성생활요인, 친밀감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5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63.4%로 63.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표 4>과 같이 나왔다.

부부간의 차이와 사회심리적 갈등요인별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여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부부갈등의 전체점수는 49-245점의 범위에서 얻을 수 있다. 총체적인 부부갈등 점수에서 남편은 69.43 점이고, 부인은 72.54점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의 부부들의 갈등정도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총체적 갈등정도와 부인의 총체적 갈등정도와와의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하위요인별로 남편과 부인의 갈등정도를 살펴보면, 생활습관 및 태도요인, 의사소통요인, 성생활요인, 성격요인에서는 남편과 부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친밀감요인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61, p < .001$). 즉 친밀감부분에서 부인은 남편보다 더 많이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ice, P. F. (1990)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상호작용은 다른 중요한 갈등들을 훨씬 더 경감해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부부들은 이러한 사회, 심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분개하고 좌절감이나 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또한 Dhir과 Markman(1984)을 사랑, 애정, 이해, 인정, 동료의식의 부족에서 연유되는 정신내적인 갈등(*interpsychic conflict*)은 불행한 부부관계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도시 부인들의 남편과의 사랑, 이해, 애정관계의 결핍은 결혼생활에서 위기사항이 닦쳐 왔을 때 심

<표 4> 사회심리적 부부갈등 요인별 신뢰도

신뢰도	요인	MC 1요인	MC 2요인	MC 3요인	MC 4요인	MC 5요인
		생활습관및 태도	의사소통	성생활	성격	친밀감
Cronbach' α		.94	.94	.93	.90	.87

* MC; Marital Conflict

3. 부부간의 사회심리적 갈등정도의 차이
연구문제 2에서 사회심리의 총체적 갈등정도에서

리·정서적 유대관계가 더욱더 쉽게 와해되 버릴 수 있는 잠재성을 내포하게 되며, 또한 부인들의 남편에 대한 심리적 관계에 대한 불만족감은 전반적인

〈표 5〉 부부간의 사회심리적 갈등정도의 차이

갈등요인	성별 평균	남 편 (N=265)	부 인 (N=265)	SD	t값
		m	m		
요인1(생활습관 및 태도요인)		15.11	15.94	0.84	1.73
요인2(의사소통요인)		23.57	23.59	0.02	0.04
요인3(성생활요인)		10.98	10.84	0.14	0.38
요인4(성격요인)		11.74	12.35	0.60	1.73
요인5(친밀감요인)		8.03	9.81	1.78	6.61***
총체적 갈등		69.43	72.54	3.11	1.72

*** p<.001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감으로 확대되어 이러한 정신적 갈등은 부인들로 하여금 삶 전체에 대한 실패감과 불행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McMillan(1969)의 연구에서도, 카운슬러에게 찾아온 108쌍의 부부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이나고 질문했을 때, 남편들의 38%와 부인들의 46%가 이해, 사랑, 애정, 동료감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욕구가 가장 불만스러웠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현대 부부들의 부부관계연구는 사랑, 애정, 인정, 친밀감과 같은 사회심리적 관계차원의 연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갈등 정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간의 사회심리적 갈등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F-test와 사후 검증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학력, 직업, 월수입, 종교, 결혼형태가 부부의 사회심리적 갈등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본 결과 남편의 경우에는, 결혼형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들은 중매형보다 연애형에서 사회심리적 갈등을 더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0.71$, $p < .01$). 부인의 경우에는, 학력과 월수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수입에서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들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들보다 사회심리적 갈등정도가 더 높았다($F = 4.24$, $p < .01$). 즉 학력이 낮을 수록 사회심리적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수입에서는 100만원이하의 수입을 가진 가정의 부인들이 사회심리적 갈등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월수입을 가진 부인들은 사회심리적 갈등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F = 3.76$, $p < .001$).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부부간의 사회심리적 갈등에 국한하여 분석해 본 결과이지만, 포괄적으로 부부갈등요인들을 다룬 다른 연구들의 결과들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예를 들자면 중매형보다 연애형에서 사회심리적 갈등이 적었다는 결혼형태에 따른 본 연구결과는 연애형에서 부부갈등이 적었다는 한남제(1984), 박영옥(1987), 홍원표(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심리적 갈등이 많았다는 본 연구결과는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많았다는 한남제(1984), 박영옥(1986), 송말희(1990), 김갑숙(199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월수입이 적을수록 사회심리적 갈등이 많았다는 본 연구결과는 월수입이 적을수록 부부갈등이 많았다는 박영옥(1986), 김갑숙(199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특히 월수입은 많은 연구에서 부인들이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심리적인 부부갈등 정도

변인	구분	부부 갈등 정도					
		남 편			부 인		
		N(%)	M	t/F	N(%)	M	t/F
연 령	21-30세	43(16.2)	65.7	0.61	123(46.4)	71.3	0.89
	31-40세	212(80.0)	70.4		139(52.5)	73.2	
	41-50세	10(3.8)	65.0		3(1.1)	93.7	
학 령	고졸이하	43(16.2)	71.0	0.12	94(35.5)	78.3	4.24** A
	대졸	188(70.9)	68.9		156(58.9)	68.1	B
	대학원졸이상	34(12.8)	70.5		15(5.7)	61.7	C
직 업	전문직	87(32.8)	65.6	1.90	63(23.8)	67.4	0.99
	관리직	21(7.9)	74.0		5(1.9)	70.6	
	사무직	127(47.9)	68.8		45(17.0)	80.0	
	판매/서비스직	23(8.7)	80.4		14(5.3)	73.3	
	생산직	5(1.9)	91.6		3(1.1)	55.3	
	기타	0			7(2.6)	68.0	
	무직	2(0.8)	50.5		128(48.3)	73.1	
종 교	무교	136(51.3)	69.5	0.02	98(37.0)	74.1	0.16
	유교	129(48.7)	69.4		167(63.0)	72.0	
월 수 입	100만원이하	15(5.7)	84.4	1.79	15(5.7)	106.4	3.76*** A
	200만원이하	135(51.0)	68.6		135(51.0)	85.3	B
	300만원이하	90(33.9)	69.8		90(33.9)	78.1	B
	301만원이상	25(9.4)	77.7		25(9.4)	63.3	C
결혼형태	중매형	70(26.4)	67.6	0.71**	70(26.4)	76.6	1.34
	연애형	195(73.6)	70.1		195(73.6)	71.0	

** p<.01 *** P<.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한지 5년미만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심리적 갈등의 내용과 갈등정도의 차이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갈등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도시 부부들의 주요 사회심리적 갈등 요인은 5요인으로, 제1요인으로 “생활습관 및 태도 요인”, 제2요인은 “의사소통요인”, 제3요인은 “성생활요인”, 제4요인은 “성격요인”, 제5요인은 “친밀감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대 도시 부부들의 사회심리적 갈등정도는 평균치로 분석해 볼 때 中下로 비교적 높지 않게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을 비교해 볼 때,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치로 비교해 볼 때, 대체로 남편보다 부인들이 사회심리적 갈등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었다. 각 하위 요인별로 남편과 부인들의 사회심리의 총체적 갈등정도를 비교해 볼 때, 친밀감요인에서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인들이 남편보다 더욱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즉 친밀감부분에

있어서는, 남편들이 부인에 대해 갈등을 느끼는 것보다, 부인들이 남편에 대해 갈등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각 가정에서 부인들은 남편들이 애정이 없고 무관심하고, 마음을 털어 놓지 않는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 남편의 친밀감 차원의 상호작용이 부부관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남편들은 부인과의 상호작용 중에서 특히 심리적, 정서적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특히 현대의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좀더 신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들의 사회심리적 갈등 정도에는 남편의 경우에는 결혼형태에서 연애형이 중매형보다 더욱 갈등을 적게 느끼고 있었으며, 부인의 경우에는 학력과 수입이 낮을 수록 더욱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부부갈등연구에 대해 다음 몇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현대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를 좀더 다차원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대 부부들의 중요한 사회심리적 갈등요인들을 밝혀 보았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비춰 볼 때, 현대 부부갈등연구는 부부간의 심리적·정서적 관계가 중요한 관계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구방향을 좀더 다각화하여, “관계차원”에서의 사회심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좀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제로 가정생활에서 부부들의 심리·정서적 관계의 건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program 개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연구대상의 선정문제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2자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부부갈등을 연구할 때, 남편파로 부인파로 각각 독립된 대상(독립표본)을 표집하여 연구하였는데, 현대 가족에서의 부부갈등을 연구할 때에는, 부부체계에서 벌어지는 갈등 즉 남편과 부인의 관계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세밀하게, 높은 질적 차원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부부를 쌍으로 표집(중속표본)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많은 연구

들이 양적연구로 자료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력해 왔는데, 갈등은 관계적 차원의 연구로써 상당히 세밀하게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연구방법론을 좀더 과학화, 체계화하여 질적 연구인 사례에 의한 심층분석도 양적 연구 못지 않게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미령(1990).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시 내재된 갈등과 갈등관리형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양희(1993). 한국가족의 갈등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 4) 김영자(1992). “도시 지역주민이 경험한 부부간의 갈등요인,갈등정도,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재경(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형성기 가족과 확대기 가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정옥(1985). “도시 부부의 갈등해결 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폭력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 학회지 23(1).
- 7) 김태현,이성희(1994). 결혼과 사회, 서울 :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8) 김혜경(1986).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박영옥(198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변희순(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서울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 11) 서동인,정현숙(1994). “한국 도시가족의 부부문제 연구”. 서울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제1권.
- 12) 서동인의 2인(1995).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서울 : 하우.

- 13)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 (2).
- 14) 송성자(1995).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 법문사.
- 15) 송영자(1986). "부부간의 갈등표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옥선화, 정민자(1993). 결혼과 가족, 서울 : 하우.
- 17) 유영주(1993). 신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18) 이미영(1994). "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문제 및 대응행동 분석-전화상담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이영실(1989). "도시 부인의 부부갈등의 주요인과 성생활불만족의 정도".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장희숙(1995). 가족심리학, 서울 : 박영사.
- 21) 통계청(1993). 인구동태통계연보.
- 22) 통계청(1993). 인구주택총보고서.
- 23) 한국여성개발원(1990). 영세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 24) 한남제(1984). 한국 도시가족 연구, 서울 : 일지사.
- 25) ——(1987). "도시 부부의 갈등에 관한 일 연구". 대구 : 효성여자대학교 부설 한국여성문제연구소. 여성문제연구(15).
- 26) 홍원표(1993). "도시 맞벌이 부부의 갈등관계-부산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Argyle, M. & Furnham, A.(1983). Sources of satisfaction and conflict in long-term relationships. JMF (45).
- 28) Arond, M. & Pauker, S. L.(1987). From the first year of marriage, N.Y. : Warner Books.
- 29) Betcher, W. & Macauley, R.(1990). The seven basic quarrels of marriage : Recognize, defuse, negotiate, and resolve your conflicts. N.Y. : Villard Books.
- 29) Coleman, J. C.(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 The Bobbs Merrill.
- 30) Dhir, K. S. & Markman, H. J. (1984). Application of social judgment theory to understanding and treating marital conflict. JMF (46).
- 31) Geiss, S. K. & O'Leary, K. D.(1981). Therapist ratings of frequency and severity of marital problems : Implications for researc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 32) Knapp, M. L.(1984).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 Boston : Allyn and Bacon.
- 33) Madden, M. E. & Bulman, J. R. (1981). Blame control and marital satisfaction : wives attribution for conflict in marriage. JMF (43).
- 34) Mcmillan, E. L.(1969). Problem Buildup: A description of couples in marriage counseling. The Family Coordinator (18).
- 35) Pruitt, D. G. & Rubin, J. Z.(1986). Social conflict : escalation, stalemate, and settlement. N.Y. ; Random House.
- 36) Rice, F. P.(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 Allyn and Bacon, Inc.
- 37) Rice, F. P.(1990).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s, and families. California :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38) Stinnett, N. & Defrain, J.(1985). Secrets of stron families.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